

##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서울대공원의 '서울동물원에서 꿈을 잡(Job)아라!'

##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육사’뿐?”



맹수사를 방문한 학생들이 사육사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는 모습. 서울대공원 제공

동물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사육사’다. 하지만 수많은 관람객이 찾는 동물원에는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동물들을 살피고 돌보는 다양한 이들이 있다. 사육사와 수의사 외에도 △동물 생태 전시와 복지를 위해 연구하고 활동하는 큐레이터 △동물들의 다양한 먹이를 영양학적으로 연구하고 계절별, 생태주기별로 맞추어 공급하는 야생동물 영양사 △동물들이 죽은 후 연구와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박제, 골격, 모피 표본을 만드는 박제사 △동물마다 다른 생태환경을 만들어 주는 조경 전시전문가 등 여러 직업인이 근무하는 것.

서울대공원은 동물원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미래를 폭넓게 설계해 갈 수 있도록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서울동물원에서 꿈을 잡(Job)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원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영상과 강의를 보고 들은 후, 다양한 동물들이 사는 동물사를 견학하는 이 프로그램은 동물사별로 사육사나 수의사 멘토가 동행해 학생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

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7~10명씩 소수 인원끼리 그룹을 지어 △해양관 △유인원관 △꼬마동물사 △곤충관 △맹수사 등 서울동물원의 여러 동물사들 중 한 곳을 직접 둘러본다. 또 약 1시간가량 이어지는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생생한 경험담과 직업인으로서의 고충도 들어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11월 8일(수), 15일(수), 21일(화)~24일(금)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다. 서울대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35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비용은 무료이나, 청소년 1인당 3000원의 동물원 입장료가 있다. 30명 이상 단체일 경우 2100원으로 할인된다. 문의 02-500-7177

**체험활동 연관 직업**

수의사: 아픈 동물을 대상으로 기존의 병력과 진찰, X-ray 및 초음파 등의 각종 검사를 통해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 및 치료를 한다. 동물원의 동물과 수족관의 수생동물 등 각종 동물의 영양 상태를 관리하고 이들의 번식 및 사육, 질병과 관련하여 일을 하기도 한다. 세밀한 관찰력을 가진 꼼꼼한 사람에게 유리하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침착성과 인내심, 끈기가 필요하다.

●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의 기상·천문 융합 체험 프로그램  
“하늘과 우주, 체험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주관측실의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학생들의 모습.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제공

날씨는 매일 달라질까? 어떻게 날씨를 예측할 수 있을까? 오늘밤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자리는 무엇일까?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은 기상과 천문을 융합한 특성화 과학관으로 올해 1월 정식 개관했다. 실내·외 10여개의 체험 공간(△기상과학마당 △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 △보조관측실 △해보다기상인 △체험전시실 △일기예보 스튜디오 △4D다면영상관 △기상현상 가상현실 체험존(ClimaX) △퍼니스튜디오)에서 기상 및 천문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기상과학마당’에서는 기상장비 전문가인 ‘구름별 멘토’에게 직접 기상장비와 기상관측에 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다. 8m 천체 투영돔 스크린이 있는 ‘천체투영실’에서는 전문 강사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절별 별자리와 오늘밤 관측 가능한 별자리, 행성, 천체 대상을 배울 수 있다. 또 굴절망원경과 반사망원경이 있는 ‘천체관측실’과 ‘보조관측실’을 통해 주간에는 태양을, 야간에는 달과 행성을 관측할 수 있다.

기상전문가가 되어 볼 수 있는 특별한 진로체험공간도 있다. ‘해보다기상인’ 체험실에서는 일기예보의 생산과정을 알아보고 직접 기상예보관이 되어 일기도를 그려 본다. ‘기상캐스터 스튜디오’에서는 기상캐스터가 되어 일기예보를 발표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3면의 파노라마 스크린과 모션의자를 통해 기상현상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4D다면영상관’, 다양한 날씨와 자연환경을 소재로 AR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퍼니스튜디오’ 등이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의 주간 체험은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회, 오후 2회 진행되며 체험 소요시간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야간 체험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사전 예약자에 한해 운영된다. 체험신청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문의 063-538-0665

**체험활동 연관 직업**

기상예보관: 각종 기상 관측 기기들의 자료와 대기과학을 이용하여 현재의 기상상황을 분석하고 일기도를 작성하여 날씨 예보를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관측, 예보에 기반을 두고 지진, 화산, 기후 변화, 기상산업, 수문기상, 우주기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